

전시장에서 만난 회원사 우수제품

상반기에 많은 산업박람회가 열린 가운데 광학 및 정밀기기 관련 전시회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집중적으로 열렸다. 본 고에서는 한국광학기기협회와 회원사가 한국공동관으로 참가한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렌즈 설계 및 제조 박람회'를 비롯하여 국내의 'LED & Optical Expo', '월드 IT 쇼', 'LED & OLED Expo' 등에 참가한 회원사들의 우수제품 및 기술에 대해서 집중 소개한다. 〈편집자 주〉

취재/박지연 기자

한국광학기기협회 및 광학업체 6개사, '렌즈 설계 및 제조 박람회 2010' 한국공동관 참가 -74억여 원의 수출상담 계약 성사-

한국광학기기협회(회장·박상진/삼성전자(주) 디지털이미징사업부 사장)에서는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렌즈 설계 및 제조 박람회 2010(www.optronics.co.jp)'에 광학부품업체 6개사와 한국공동관으로 참가하여 74억여 원의 수출상담 계약을 성사시켰다.

본 전시회는 일본의 전문 광학설계, 성형연마 기술, 박막기술관련 전문전시회로 '레이저 EXPO' 및 'VISION JAPAN' 전시가 동시 개최되었으며, 220여개의 광학부품분야 전문회사가 참가하여 현재 광학의 첨단기술 수집 및 일본 광학업체간의 교류의 장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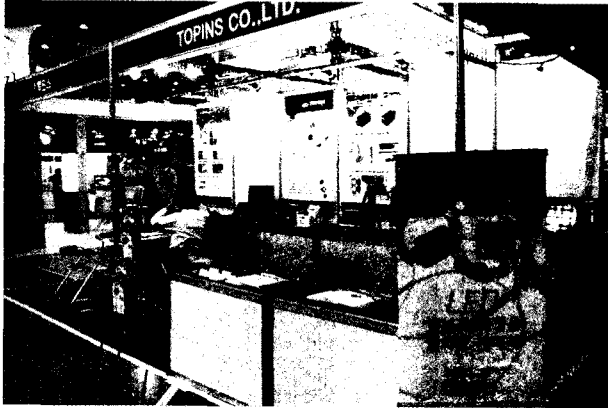
금번 한국공동관 참가는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의 대일수출상담 지원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한국광학기기협회 회원사 6개사(나오텍, 챔프다이아, 태영광학, 에스피오, 차바이오&디오스텍, 그린광학)가 참가하여 일본 광학업체들로부터 집중적인 관심과 수출 상담으로 이어져 향후에도 많은 성과가 기대된다.

한국광학기기협회 우태주 상근부회장은 "한국 업체들이 전시회에 처음 참가했음에도 일본제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중국제품과 비교 안 되는 높은 품질을 자랑하여 일본 바이어들로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며 "향후에도 동 전시 참가를 통해 국내 광학부품업체들의 일본진출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토피스

열화상카메라 집중 홍보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열린 'LED & Optical Expo'에서 토피스는 열(온도)분포 측정용 열화상카메라를 전시하고 홍보했다. 이날 전시된 열화상카메라는 그린에너지 제품 구현을 위한 열 설계 및 측정을 위한 제품으로서 연구개발 및 제품검사를 위한 LED, PCB 기판 등의 정밀한 열 분포 측정이 가능하며, 측정된 열 분포 장면을 상세히 분석할 수 있는 열 분포 온도분석 소프트웨어가 제공된다. 한편, 토피스는 TICA-K030모델이 국내에서 최초로 KCC, FCC 및 CE 인증시험을 모두 통과하여 인증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주)이오테크닉스

첨단 산업분야의 레이저 마커 선보여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열린 'LED & Optical Expo'와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LED & OLED Expo'에 참가한 이오테크닉스는 레이저 마커 제품들을 선보였다.

이 회사는 저가형 Diode Pumped Nd:YAG 레이저 마커로 마킹 품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CO2 방식과 가격경쟁이 가능한 점이 특징인 디스크리트 반도체용 레이저 마커를 비롯하여 자동차 부품 시장을 겨냥한 범용 레이저 마커도 선보였다.

삼성전자(주)

3D 풀 HD LED TV 신제품 선보여



지난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린 월드 IT쇼의 삼성전자 부스에서 3D TV로 축구 경기를 지켜보는 참관인들.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유려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3D 풀 HD 'LED 9000' TV를 선보이며 집중 관심을 받았다. LED TV 9000은 전면뿐 아니라 후면까지 전체 스테인리스 메탈 소재를 채용하고 가장 얇은 7.98mm의 초슬림 두께와 함께 오토슬라이딩 터치패드의 스탠드, 프리미엄 터치스크린 스타일의 3D 입체영상, 인터넷 TV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제품이다.

(주)캐리마

쾌속 광조형기 선보여

지난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린 월드 IT쇼에서 캐리마는 쾌속 광조형기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각종 3D 모델링 데이터를 원하는 실물 모형으로 제작하는 3D 프린터기기로, 기존 레이저가 아



년 광학 적층 DLP 경화 방식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가장 일반적인 적층방식이 아닌 한 면 전체를 경화시키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타사 제품에 비해 적층 속도가 빠르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또 액상 방식으로 적층돼 기존 제품

에서 발생했던 분사 방식의 노즐 막힘 현상을 해결했다.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 설계된 광조형기는 제품의 오차 범위를 최대한 축소했으며, 섬세한 표현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전자제품 뿐만 아니라 건축 모형, 캐릭터제품, 의료제품 등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주)모던하이테크

CODE V와 LightTools 광학프로그램 적극 홍보



지난 6월22일부터 2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LED & OLED Expo'에 참가한 모던하이테크는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광학산업 분야의 결상 광학계 설계 프로그램인 CODE V와 조명광학 설계프로그램인 LightTools 프로그램을 홍보했다.

(주)아주광학

친환경·저전력 LED 조명 신제품 대거 선보여



광학렌즈 전문업체인 아주광학이 지난 6월22일부터 2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LED & OLED Expo'에 참가, 친환경·저전력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제품 6종을 선보였다.

아주광학이 이날 선보인 조명 제품은 LED MR16, LED BULB LAMP, LED PAR30, LED 투광등, LED 터널등, LED 가로등 등 6가지의 산업용 및 일반용의 LED조명 제품으로서 LED의 친환경·저전력 장점에 맞춰 그린산업으로서의 가치를 한껏 부각시켰다.

현재 LED 조명시설은 기존의 나트륨 조명등에 비해 수명이 길어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높은 에너지 효율 및 상대적으로 적은 전력 소모량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조명기구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날 아주광학에서 선보인 LED 가로등의 경우 저전력 고효율 에너지절약형 LED 조명기술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아주광학의 최상관 사장은 "자동차 헤드램프용 렌즈와 해외수출용 영상렌즈의 설계 및 제조기술을 기반으로 향후 친환경 정채색성제품인 LED 조명등 시장에서도 기술선도업체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